

사랑의 殿堂

順아 너는 내 殿에 언제 들어왔든것이나?

내사 언제 네 殿에 들어갔든것이나?

우리들의 殿堂은

古風한 風習이어린 사랑의 殿堂

順아 암사슴처럼 水晶눈을 내려감어라.

난 사자처럼 엉크린 머리를 고루런다.

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 었다.

靑春!

聖스런 촛대에 熱한불이 꺼지기前、

順아 너는 앞문으로 내 달려라.

어둠과 바람이 우리窓에 부닥치기前

나는 永遠한 사랑을 안은채

뒤 門으로 멀리 사라지련다.

이제.

네게는 森林속의 안옥한 湖水가 있고、

내게는 峻儉한 山脉이있다.

사랑의 전당

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?

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?

우리들의 전당은

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

순아 암사슴처럼 수정눈을 내려 감아라.

난 사자처럼 엉크린 머리를 고루런다.

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였다.

청춘!

성스런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

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 달려라.

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

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

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.

이제.

네게는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가 있고

내게는 준험한 산맥이 있다.